

‘순정’ 장르의 성립과 순정만화*

서은영**

1. 문제제기 ; 순정만화의 전제
2. ‘순정’의 용례와 여성화 : 순정하러
3. 아동 만화잡지 출간과 ‘순정만화’의 성립
4. 소녀소설의 연장으로서의 순정만화
5. 결론 ; 업희자의 등장과 남은 문제들

국문요약

이 논문은 순정만화의 형성 배경을 고찰하고 있다. 순정만화는 일본의 쇼조망가(少女漫画)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향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순정만화라는 큰 스펙트럼을 이 영향관계로 하여금 지나치게 압축시켜버림으로써 순정만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본고는 순정만화의 탄생을 다각적인 면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순정’이라는 단어의 의미 변화를 추적해 ‘순정’이 어떻게 만화와 교차되었는지 분석했다. 식민지기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순정’은 문학 안으로 유입되면 ‘순수함’이 더욱 표백된 의미로 변하였다. 또한 감성/감정어인 ‘순정’은 소녀가 호명되면서 여성성을 부여받게 된다. 만화잡지사들은 만화독자로 소녀를 상정하면서 소녀 취향을 주조해 나가야 했는데, 이때 매체적 전략으로 ‘순정’

* 이 논문은 2015년 10월 2일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하였음.

**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외래강사

의 서사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한 만화인 만큼 ‘순정’의 서사에서 사랑은 탈각되고, ‘순수’와 ‘감성성’만이 남게된다. 이때 ‘감성성’은 주로 신파적 감성이며, 주인공인 소녀는 수동적인 여성성을 내재한다. 이러한 초창기 순정만화의 서사구조와 인물의 특성은 식민지 시기의 소녀소설에서부터 원류를 발견할 수 있다. 가련하며, 순응적이고 감상적이며 의존적인 내면을 지닌 소녀는 1960년대 엄희자의 등장 이후로도 한동안 서사적 관습을 유지하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초창기 순정만화의 특성이 일본 쇼조망가와의 영향관계로 단순화할 수 없는 중층적인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주제어: 순정, 순정만화, 쇼조망가, 소녀, 소녀소설, 엄희자, 1950년대, 만화잡지, 만화)

1. 문제제기 ; 순정만화의 전제

1940년, 민족지였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폐간으로 명맥이 끊겼던 식민지 조선의 만화는 해방 이후에 창간된 매체들에 의해 양적으로 팽창한다. 해방 이후 출판계는 시사, 문예, 기관지, 학술지에서부터 대중지까지 다양한 층위의 잡지들을 출간했으며, 여기에는 어린이를 독자로 하는 잡지 출간도 이어졌다.¹⁾ 잡지 출간은 전쟁 중에도 계속되었다. 피난지였던 부산에서는 『희망』, 『여성계』와 어린이 잡지 『새벗』, 『학원』 등이 출간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범람하는 잡지들만큼이나 이들 잡지에는 만화가 게재되면서 만화 편 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단행본 형태가 아닌, 잡지에 게재된 만화는 잡지의 매체 전략에 따라

1)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복간을 비롯하여 『신천지』, 『신태양』, 『문예』와 같은 어린이용 잡지와 『신소년』, 『주간 소학생』, 『어린이 세계』, 『파랑새』, 『소학생』, 『새동무』 등의 어린이 잡지가 창간되었다.

수밖에 없다. 즉 다종의 잡지가 간행되고 거기에 만화가 게재되었다는 것은 만화의 양적 팽창을 비롯하여 다양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신문이나 잡지 간행이 여의치 않았던 식민지기에는 각 신문사와 출판사가 상정하는 독자층에 따라 성인 남성(주로 지식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만화가 주로 게재되었다.²⁾ 그런데 해방 이후에 다양한 잡지가 창간됨으로써 잡지가 대상으로 삼은 독자층이 넓게 상정된 것이다. 잡지의 목적에 따라 시사지, 문예지, 기관지, 학술지, 대중지가 출간되었으며, 독자 구성에 따라 여성지와 어린이 잡지에 이르기까지, 간행된 잡지들은 잡지사의 성격에 맞춰 만화도 함께 게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는 잡지 출간 붐에 따라 만화 역시 양적으로 팽창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르의 분화를 가져올 기반을 마련했다. 만화는 잡지에 실어야 할 양이 많아지면서 여러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식민지기의 역사소재 만화는 유명한 재담꾼의 일화나 고전문학에서 소재를 가져온 것에 불과했다면, 1950년대에는 괴기, 활극, 희극, 비극 등으로 파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파생이 확실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어서 1950년대의 만화계는 상당히 난잡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난잡함과 모호함 속에서 만화가 장르적으로 파생되고 확산될 징후들이 산발적으로 포착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 20-30년 후에 만화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시기가 바로 1950년대라 할 수 있다.³⁾

순정만화 역시 이 시기에 한 장르로 파생되기 시작했다. 흔히 순정만

2) 〈마리아의 반생〉, 〈옥경의 일생〉처럼 여성이 주인공인 만화가 독자층으로 삼은 것도 남성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서은영, 『한국 근대 만화의 전개와 문화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8. 참고.

3) 1950년대 역사만화의 등장과 양상에 대해서는 서은영, 『역사만화의 형성과정과 양상』, 경남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학술대회 발표문, 2015.9. 참고.

화는 일본의 쇼조망가(少女漫画)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영향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순정만화는 쇼조망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명문화함으로써 순정만화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 195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순정만화의 계보를 훑어보면 순정만화가 쇼조망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논의가 틀린 것도 아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것은 그렇다 쳐도 순정만화가 탄생에서부터 오늘날의 개념으로 정립되기까지, ‘순정만화’라는 큰 장르 개념을 하나의 덩어리로만 여김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결절들 사이의 미세한 틈들을 메우지 못하고 미해결인 채로 봉인되어 왔던 것은 아닐까.⁴⁾

순정만화의 처음을 논할 때 많은 논자들은 1956년 게재된 그림이야기 〈흰구름 가는 곳〉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 그림이야기가 ‘순정’이라는 표제를 단 최초의 사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료 중 만화잡지에서 ‘순정’이라는 표제가 최초로 쓰인 것은 〈흰구름 가는 곳〉이 맞다. 하지만 ‘순정’은 이미 다른 매체에서도 등장했으며, 특히 1956년에는 다수의 잡지들이 독자 확보 전략의 하나로 내세운 서사 중 하나가 ‘순정’이었다. 즉 ‘순정’은 이 시기에 통용되는 표제의 하나였으며, 대중서사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이미 형성되어 있던

4) 만화 연구자들은 순정만화의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순정만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1950년대를 전후한 시기이며, 두 번째는 1963~4년에 등장한 엄희자를 기점으로 구분한다. 엄희자는 이전 순정만화의 스토리를 따르면서 쇼조망가의 그림체를 본 따 순정만화의 조형미를 처음으로 선보였던 작가이다. 즉 연구자들은 엄희자를 기점으로 순정만화의 그림 스타일이 변화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세 번째 시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인지인 〈아홉번째 신화〉가 창간되었던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한다. 오늘날 흔히 순정만화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를 구축한 시기가 바로 1980년대라는 점에서는 동의하는 것이다. 이 시기가 바로 순정만화의 장르적 성격이 확고해지는 기점이다. ‘순정만화’의 장르성이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있는 탓에, 이 세 시기의 순정만화가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용어가 만화에 교착되어 ‘순정만화’라는 장르적 개념을 형성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순정만화에 관한 논의는 만화의 영역에서 벗어나 다른 매체와 사회·문화적인 관계 내에서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다.

순정만화의 형성에 관한 논의들은 순정만화가 가족만화의 자장 안에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⁵⁾ 그렇다면 일본의 쇼조망가(少女漫畵)와 달리 한국의 순정만화는 왜 가족만화와 접목해야 했던 것일까. 이 의문에 앞서 선행되는 질문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순정만화가 왜 한자어를 번역한 “소녀만화”가 아닌 “순정만화”라는 표제를 정착한 것인가이다. “쇼조망가(少女漫畵)”는 독자 대상을 표제화한 것이지만, 왜 한국 만화는 일본의 “쇼조망가”를 “순정만화”라는 내용상의 의미로 고착한 것인가. 이는 일본의 쇼조망가에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한국 내에 있던 어떤 정서가 “소녀”라는 집단이 호명되면서 마침 “순정만화”라는 만화 장르로 교착된 것은 아닐까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들을 풀어감으로써 순정만화의 계보를 잇는 데 있어 결절들 사이의 틈을 메우고자 한다. 이 논의는 그러한 과정 중 서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950-60년대 순정만화가 등장하기까지의 과정과 매체적 지형 및 만화사의 흐름 속에서 초창기 순정만화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5) 백정숙은 김종래나 박기준, 박기정의 작품까지 순정만화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으며 (백정숙, 『소녀세계의 창을 연 엄희자』, 박재동·김이랑, 『한국 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1995.), 박인하는 “1950년대에 발생하여 가족만화에서 소녀 취향 만화로 분화해 가는 와중에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만화를 구분하기 위해 붙인 명칭이 순정만화”라고 했다. (박인하, 『누가 캔디를 모함했나』, 살림, 2000, 38쪽.)

2. ‘순정’의 용례와 여성화 : 순정하래

1950년대 ‘순정’이라는 표제는 만화에만 붙였던 것은 아니다. 만화에는 195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등장했고, ‘순정’과 ‘만화’가 장르적 의미로 확고하게 교착된 것은 적어도 1970년대가 지나서 가능한 일이었다. 19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대중잡지들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통속 소설들을 게재하게 되는데, ‘순정소설’도 그 중 하나였다. 순정소설의 시작이 언제인지는 아직 정확한 사료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개는 1950년대 초반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잡지들에서 순정소설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잡지 『학원』에 실린 순정소설 가운데 이봉구의 〈창포꽃 필 때면〉(1954. 5월호)을 시작으로 이원수의 〈그림 속의 나〉(1954.6), 한무숙의 〈얼굴〉(1954.7), 최정희의 〈하얀꽃 한송이〉(1954.8) 등 1954년을 시작으로 1950년대 말까지 순정소설은 꾸준히 게재되었다. 이선미는 대중잡지 『아리랑』의 명랑소설 분석을 통해 1955년 7월호에 염상섭이 자신의 소설 〈청첩장〉을 ‘순정소설’로 명명한 데서 등장하기 시작한 이 장르가 1956년 후반기에 번성하기 시작해 1957, 58년을 거치면서 명랑소설과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점차 명랑소설의 순정화, 순정소설의 에로티시즘화로의 변화 과정을 거친다고 분석했다.⁶⁾ 다른 매체에서도 ‘순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아서 ‘순정’이라는 장르가 어떤 방식으로 대중 예술의 장르 개념으로 고착되어 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장에서는 ‘순정’이라는 장르가 생기기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순정(純情)의 용례를 살펴보고, 그것이 만화사에서 장르적 개념

6) 이선미, 『명랑소설의 장르인식, ‘오락’과 ‘(미국)문명’의 접점』, 『한국어문학연구』 제5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 81~87쪽.

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동아일보』기사에서 ‘순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純正, 純情이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純正은 순정철학(純正哲學), 순정과학(純正科學), 순정미술(純正美術)과 같이 주로 학문이나 이론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 붙거나, “순정한 행동(純正한 行動), 순정한 동기(純正한 動機)”⁷⁾, “純正 리아리즘”⁸⁾, “純正한 계통의 露西亞人”⁹⁾에서처럼 “순수하고 올바른”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용례들의 쓰임에서 “純”이란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옳다, 바르다”라는 “正”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純正”은 그야말로 오염이 되지 않은 순수의 결정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 이처럼 “純”은 ‘어떠한 티끌도 허락하지 않는 순수함의 결정체’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는 감정을 내재한 연사로 사용된 “純靑”에서도 마찬가지다.

(가) “아아 감격에 넘치는 순간에는 사람은 능히 저편 쪽의 심리며 진심까지 귀신과 가티 꿰어드려다 볼 수가 있는 것이다. A군은 C의 눈에서 純情의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결코 뿌르조아의 자비심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우애이었던다. (김동인, 〈純靑(우애편)〉, 『동아일보』, 1930.1.24.)

(나) 愛國의 純情을 善用하여 自求自活에의 一路邁進만을 기대 새해의 도소기 분(屠蘇氣分)은 천부당 만부당이니 三千萬은 우리의 當面路線을 냉엄히 파악할 것을 일언. (『황설수설』, 『동아일보』, 1946.1.1.)

7) 『중국에 대한 신차관단성립(2)』, 『동아일보』, 1920.5.24., 1면.

8) 『희곡의 리얼리즘』, 『동아일보』, 1936.4.12., 7면.

9) 『露人의 정치와 유태인의 경제』, 『동아일보』, 1926.11.1., 1면.

(가)의 김동인의 〈순정(純情)〉은 남자들의 우애를 그리고 있다. 졸업 후 자신만 취직을 못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던 A군의 집에 부르주아인 C가 찾아와 물질적 도움을 베푼다. 이 C의 행동을 A는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점차 자비심이 아닌 진정한 우애에서 나오는 “純情”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순정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감정의 소양으로 기획되기도 했다. 1934년 7월 24일 삼남 지방에 난 수재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약 700 여명의 실종자와 부상자가 생겨났다. 23만 여 명은 수재로 인해 이재민이 되었다. 『동아일보』는 그 해 연말까지 삼남수재 관련 이재민 돕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때 『동아일보』가 낸 기사에는 “순정”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순정의 꽃」(이하 『동아일보』, 1934.7.30.), 「동심의 순정」(1934.7.30.) 「도문성경교생 눈물겨운 순정」(1934.8.26.), 「여교원들의 순정」(34.8.28) 등 신문은 삼남 수재민들에게 보내는 각지의 성금을 보도하며 이들의 행위에 “순정”이라는 감정어를 덧씌우고 있다. 어린 아이부터 고등학생, 여교사할 것 없이 삼남 수재의 참담한 상황에서 순정은 동정의 서사로 쓰였다. 즉 순정은 민족적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감정으로 상상되기도 했다.

이러한 순정의 쓰임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나)에서처럼 “愛國純情”이다. 애국순정은 해방과 전쟁 상황에서 특수적으로 사용되었다. 해방 이후의 국가재건과 전쟁 상황 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애국 순정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보존과 재건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애국순정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식민지라는 특수적 상황으로 인해 쓰이지 못했지만, ‘순정’이 상상된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이라면 가져야 할 감각으로 소비된 것은 해방이후와 마찬가지로, 우애이든,

동정이든, 혹은 애국이든 간에 아무런 계산과 잡음이 없는 순수한 마음, 열정만으로 가득한 마음이 바로 ‘순정’이다. (가)의 C가 가진 마음도 바로 ‘순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정’이 문학 안으로 들어오면 그 순수성이 더욱 표백되어 발화된다. 그것이 바로 純情이다. “순수하다”는 범위에서 純情과 純正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 純情은 감정, 감각, 정서의 의미들을 내포한다. 감정이 개인의 내면을 자각하고 풍경을 발견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곧 근대에 유입된 의미로 볼 수 있다.¹⁰⁾

내면의 자각과 풍경의 발견이 ‘순정’과 만나는 지점은 바로 문학이었다. ‘순정’이 문학에서 사용되는 순간 청춘의 순정은 대부분 남녀가 가지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로 바뀌었다. (다)는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공연된 〈크레노 교수〉의 삼막극의 내용 중 일부다. 〈인형의 집〉의 로라가 “헬머에게 순정을 희생하여 일군 집”이라든지, 〈사랑과 죄〉의 “순영이 다운 순정이 숨이는 것을 못깨다를 해춘이는 아니었다”(1927.12.15.)는 등 1930년대 들어 문학에서 ‘순정’은 더욱 자주 쓰였다. 1930년대에 대중소설이 양산되면서 1920년대에 발견된 연애는 점차 ‘순정’이라는 감정, 정서가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다.

(다) …이 극의 내용은 “크레노”라는 장년교수, 그는 연애 경험도 없는데다가 眼病으로 失明에 가까운 불행에 빠졌다. 그러한 중에 “엘리즈”라는 동리처녀가 난폭한 酒狂인 아버지에게 학대 받다가 드디어 이교수에게 청하려고 뛰어들어왔다. 그래서 교수는 이 처녀의 진실한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차차 교수는 엘리즈에게 연정을 품게되나 엘리즈에게는 벌써 마음으로의 젊은 청년애인이 있었다. … 엘리즈는 이 늙은 교수의 순정에 연민을 느끼어 그대로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중 교수는 실명하고 말았다. …교수는 쓸어넘어진 엘리즈를 껴안고 이 여

10) 이에 대해서는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2005를 참고할 것.

자의 죽음에서 비로소 자기는 이 엘리즈를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다는 狂喜에서 막은 내려진다. … (『불란서 극단풍경(3)』, 『동아일보』, 1934.2.9. 3면)

(라) …春情은 이미 황막한 풍경에 低流하얏거늘 이 가느다란 생명의 가지는 뉘몰래 먼저 열여덟 아가씨의 풋마음 같은 새빨간 순정의 봉오리를 아프게도 틀 거니와 나의 심사는 고루하야 두더쥐 어찌 이 漂渺한 계절을 등지고서 호올로 가 시길을 가라는고! (유치진의 〈복숭아꽃〉, 1934)

그런데 이 순정이라는 어휘는 다소 ‘맹목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다)의 엘리즈가 사랑하는 젊은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교수와 결혼한 것은 교수의 순정에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수가 실명하자 엘리즈는 다시 흔들리고 그런 엘리즈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교수는 자살소동을 벌이지만 오히려 엘리즈가 그 충을 빼앗아 자결하고 만다. 이때 노교수는 엘리즈를 완전히 소유하게 된 것에 기뻐한다. 〈크레노 교수〉의 평을 쓴 이서구는 노교수의 행위를 “狂喜”로 표현한다.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이후 광적인 집착으로까지 변진 것이겠지만, 순정의 서사는 주로 이렇게 맹목성을 동반하기도 한다. 〈인형의 집〉에서의 로라 역시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전까지, 그녀는 남편에게 헌신했다.

이와 같이 ‘순정’이라는 어휘에 순수함, 순결함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때로는 맹목성, 광적인 사랑, 헌신을 불러오기도 한다. 함대훈의 〈순정해협〉(〈조광〉, 1936.1월8월)은 식민지 시기의 ‘순정’의 의미를 집약해 보여준다. 〈순정해협〉의 소회는 타락해 부유한 영철을 택하거나 사생아를 낳기도 하지만, 준걸은 소회에 대해 변함없고 고귀한 순정을 보여준다. 〈순정해협〉의 서문에서 함대훈은 “정이란 가장 높은 인생의 보물이외다. 더구나 그것이 틈없는 순정일진댄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최귀의 것입니다. 나는 이 소설에서 참된 순정에서 다란한 인생행로를 걸어가는 남녀

들의 모양을 그려보려 합니다.”¹¹⁾라고 언급했다. 소희의 타락에도 모든 것을 끌어안는 영철의 순정은 이 시대 청년들의 달뜬 연애의 표상이었다. 〈순정해협〉은 대중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얻으며 1937년 신경균 감독의 발성영화로 제작되었다. 〈순정해협〉의 성공은 ‘순정’이라는 장르의 대중성, 통속성이 입증된 결과이기도 하다.¹²⁾

식민지 조선에서 ‘순정’은 주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의기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그것은 순수함과 의지/열정이 내포된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문에서는 ‘순정’이 청춘만의 특권인양 발화되었다. (가)에서처럼 남성들의 우정이기도 했고, 〈순정해협〉의 영철처럼 남성들도 가지는 사랑의 감정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이미 ‘순정’은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언어들에 비해 감상성, 감수성을 더 농후하게 가지는 어휘였다. 게다가 (라)에서 “열여덟 아가씨의 뜻마음 같은 새빨간 순정의 봉오리”처럼 여성의 순정은 새빨간, 붉은, 홍조와 같은 색채 이미지와 연결되며, 부끄럼, 쑥스러움, 천진한 여성, 소녀들이 갖는 감정의 발로로 표현된다.¹³⁾

그리고 이러한 순정은 청춘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여성 잡지의 출간과 소녀의 호명, 소녀소설의 전개와 함께 점차 여성의 취향, 성향으로 전유되어 간다. ‘소녀’는 고어사전에 등장하지 않고 1920년대 들어서서야 활발하게 쓰이는 것으로 보아 근대에 유입된 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

11) 『조광』, 1936.1월호, 368쪽.

12) 김송이 〈순정기〉의 제목을 〈애정〉에서 〈순정기〉로 수정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1943년 3월부터 〈애정〉이라는 제목으로 『아담』에 연재했던 것을 해방 이후인 1948년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순정기〉로 수정했다. 김송은 서문에서 “이 소설은 일제시대에 ‘애정’이란 제목으로 삼판까지 내었다. 이제 해방판으로 내어 놓음에 있어, 가혹한 일제 검열로 본의 아닌 시사묘사의 불쾌한 장면을 넣었던 대목을 삭제하고, 제목도 새롭게 순정기라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3) 근대 소녀의 표상이 신체적인 징후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숙자,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어문학』 제97집, 한국어문학회, 2007 참조.

다.¹⁴⁾ 1920년대에 호명된 소녀, 신여성, 모던걸, 여학생, 기생은 여성잡지의 등장과 연애의 유행과 함께 연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통속적인 사랑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박숙자는 “센티멘탈하고 낭만성이 가득한 존재로 전치” 되는 근대의 소녀표상은 가부장적 질서에 편입된 타자화된 소녀라고 주장한다.¹⁵⁾ 그로 인해 “소녀의 내면은 무가치하고 미성숙”하다는 편견을 주체의 판타지로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소녀의 내면 속에도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순정’이라는 장르의 소녀가 왜 가녀리고 연약하며 낭만적인 존재로 표상되었는지에 대해 약간의 해답을 제시해 준다. 소녀의 유약함이 ‘순정’과 조우해 남성의 환타지, 그리고 타자화된 여성의 내면에 각인된 여성의 소녀 표상으로 점차 통속화되면서 ‘순정’이라는 장르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순정’은 특유의 관습과 감상성을 내재한 장르로 고착되었다.

3. 아동 만화잡지 출간과 ‘순정만화’의 성립

해방 이후 잡지 출간이 줄을 이었다. 이들 잡지에는 만화가 게재되는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잡지에는 빠짐없이 만화를 게재했다. 이미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린이 만화가 한창 형성되었고, 신문 지면의 한 면을 “어린이면”으로 내줄 만큼 점차 아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었다. 1938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위축되었지만, 해방

14) 최배은, 『한국 근대 ‘소녀소설’의 ‘소녀’연구』, 『아시아여성 연구』 제53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14, 116쪽.

15) 박숙자,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어문학』 제97집, 한국어문학회, 2007, 267~285쪽.

을 맞이하면서 아동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주목되었다. 1930년대에는 부모의 관심을 끌 만한 아동에 관한 정보 기사와 함께 아동만화가 신문 한 권에 게재되었던 것이, 해방 이후에는 아동만을 위한 본격적인 잡지로 출간이 이어지면서 아동을 위한 만화 시장이 대폭 확대되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비시장이 이제 막 형성되려 했던 것이다. 특히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1950년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만화잡지의 출간이었다.

현재 남아 있는 만화 잡지가 많지 않아서 추정할 뿐이지만, 1956년 『만화세계』를 비롯하여 『만화왕』, 『만화학생』이 출간되었으며, 『학원』을 간행한 학원사에서는 『만화학원』이라는 부록형태의 만화잡지를 출간했다. 아동만화 시장은 어른을 대상으로 한 만화잡지의 성공을 목도한 이후 가능했겠지만, 어린이 만화 잡지 역시 꽤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만화세계』의 사장인 김성옥은 창간 1주년 기념 특대호에서 “흥미가 진진한 가운데 마음 양식을 습취할 수 있는 그림과 만화로 가득찬 잡지가 나온 것도 처음이요, 창간호가 매진 또 매진되어 3판까지 발간된 사실, 제 3호에 10만부를 돌파한 사실 등은 한국 잡지계에 처음 있는 일이며 1년에 중간호를 6권이나 발간한 것은 세계 잡지계에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며 자축했다. 판매부수는 다소 과장되었겠지만 거듭 중간호를 냈다는 언급으로 보아 아동 만화잡지가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민학교어린이』, 1954.12월호.



『만화세계』 1956.11/12월.



『만화학생』 1957.3월.

그런데 이들 만화잡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들 잡지의 표지가 유독 소녀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출간됐던 『국민학교어린이』가 남녀 학생을 표지 모델로 했던 것과 비교해도 이들 만화의 표지 모델이 유독 여자 어린이인 것은 특징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잡지에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여자 어린이 두 명을 대상으로 한 기획사가 꾸준히 게재된다. 명랑사진소설 〈어깨동무행진곡〉(『만화세계』, 1957.1)이나 순정사진소설에도 두 여자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현재 남아 있는 만화잡지를 표본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만화잡지들에서 여자 어린이를 독자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시기에 있었다는 점이다.

엄희자 등장 이전의 만화잡지에는 이들 순정서사 이외에 소녀적 취향의 만화나 동화를 신기도 했다. 만화잡지의 대부분은 역사소재만화, 활극, 명랑, 모험, 추리, 스포츠 등으로 채워졌지만, 소녀 독자를 의식한 읽을거리가 꾸준히 게재되었다. 대표적으로 김학자의 〈동화시 스펠성의 공주〉(『만화세계』, 1957.5), 임창의 〈호상의 미인〉(『만화학원』, 미상), 양정의 소녀그림 이야기 〈동백꽃 공주〉(『만화세계』, 1958. 4월), 이송자의 〈이웃집 소녀〉(『만화학생』, 1958.3)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만화의 그림체가 순정서사의 삽화체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학자, 〈스펠성의 공주〉



순정그림이야기 〈언니를 찾아서〉

순정그림이야기 〈언니를 찾아서〉나 순정 그림소설인 〈우정의 골짜기〉처럼 “순정”이라는 표제를 단 삽화는 동양적인 소녀의 이미지를 재현한다. 오히려 김학자의 〈동화시 스펀셀의 공주〉(『만화세계』, 1957.5), 임창의 〈호상의 미인〉(『만화학원』, 미상), 양정의 〈동백꽃 공주〉와 같은 삽화와 만화가 이국적인 그림체에 가깝다. 이 그림들은 디즈니나 일본 쇼조망가의 그림체와 닮아있다. 사치스런 장식품으로 꾸며진 굵고 웨이브진 머리, 가름한 얼굴에 큰 눈과 오뎅코,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가 이들 삽화에 간간히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작품은 주로 “성 안에 살고 있는 공주나 귀족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다. 특히 임창의 〈호상의 미인〉은 데즈카 오사무의 〈리본의 기사〉와 그림설정 및 그림체가 거의 흡사하다.

이는 1950년대에 순정만화가 가족서사를 고수할 때 소녀취향 그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즉 “순정”이라는 표제를 단 이야기/소설이 한쪽에서 서사를 형성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일본 쇼조

망가의 그림체를 모방하는 삽화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녀독자의 부상으로 소녀들의 특정한 취향을 주조할 서사와 이미지가 필요했고, 이것의 재현이 만화 잡지라는 매체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바로 이 소녀취향의 그림들은 순정 만화 그림의 과도기적 형태였다. 후에 이런 그림체가 일본의 쇼조망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훨씬 이상적인 그림체로 변화했고, 이것이 엄희자의 그림들로 탄생했다. 다만, 엄희자 이후의 순정만화에도 한동안 순정의 서사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순정만화에서 초창기 순정 서사는 점차 탈각되고 쇼조망가의 이야기로 대체되지만, 순정의 감성은 여전히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적 순정만화의 성립이었다.

이처럼 195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남자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만화독자 대상을 여자 어린이까지 확대하고자 했던 잡지사의 노력이 나타났으며, 지속되었다. 그 노력과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순정만화”다. 1950년대 들어서 비로소 만화 독자로 소녀가 발견되었고, 소녀를 위한, 소녀만의 만화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만화 잡지사는 그것을 1950년대 대중서사 가운데 “순정”의 표제를 단 서사로부터 취했다. 여기에는 “순정”이라는 서사가 여성에게 적합한 것이라는 젠더적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식민지기에 남녀 모두의 순수한 감정의 발로를 ‘순정’으로 사용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순정’은 여성성이라는 함의를 끼어 넣은 의미로 차츰 이동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매체는 아동 만화잡지였다. 결국 이성은 남성적인 것이고, 감정/감성은 여성적인 것이라는 사회적 구분이 작동된 것이 바로 이 시기의 ‘순정’이라는 단어다. 이것이 국가재건 담론을 지나 근대화론을 거치면서 가부장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맞물려가면서 더욱 강력한 여성성을 부여받고 여성 독자의 전유물로 확고해진 것은 1980년을 즈음해서다.¹⁶⁾ ‘순

16) 일례로 1980년을 전후한 시기에 만화를 읽은 남성 독자들은 순정만화는 철저히 여

정' 안에 뒤섞여 있던 혼종성을 거둬내고 장르적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1980-90년대를 휩쓸었던 순정만화 붐 때문이었다.

이처럼 순정만화는 만화 잡지사들이 소녀를 독자 대상으로 삼으면서 매체 전략에 의해 그 성격을 다듬어 갔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순정만화 속 사랑이야기가 주된 서사가 되고 가녀린 여성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초창기 순정만화는 “순정”이라는 표제가 대중서사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읽을거리의 하나로 아동 잡지 내에 유입되면서 형성되었다. 그런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순정’은 사랑이 탈각된 상태의 의미만이 어린이 잡지에 남을 수 있었다. 이는 어린이의 “동심”과도 연결된다. 순수하고 어린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하는 “동심”의 상상은 이 시기에 ‘순정’으로 재현되었고, 그것이 가족서사의 한 장을 형성했다.

4. 소녀소설의 연장으로서의 순정만화

1950년대 순정만화는 가정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비극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순정’이라는 장르를 본격적으로 게재했던 잡지인 『만화학생』과 『만화세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순정사진소설, 순정그림얘기, 순정추리소설, 서부순정이야기, 순정그림소설 등 “순정”이라는 표제가 붙은 경우 그 내용은 부모의 부재나 결핍으로 인해 비극적인 처지에 놓인 소

성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확고했으며, 순정만화를 읽는다는 것이 수치심을 주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는 일이었다는 경험을 종종 이야기하기도 한다. 간혹 그 당시 순정만화를 읽었다는 남성들은 자신의 독서행위가 철저히 은폐되어야 할 것이었으며, 그것을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고백”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녀를 주인공으로 한다.

〈그날이 오면〉은 무용가였던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으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어머니는 애주에게 자신의 무용 신발을 안겨주며 집을 떠나고 애주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다. 〈환구를 가는 곳〉의 선희는 그간 받았던 어머니의 차별과 구박이 자신이 입양된 고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출한다. 〈우정의 골짜기〉의 혜순은 다리를 저는 장애를 지녔고 아버지는 마차 운전을 한다. 동네에 새로 생긴 버스로 인해 혜순과 아버지는 놀림을 당하고 혜순은 자기 비하와 슬픔에 빠진다. 〈남매는 살아있다〉의 남매는 악당으로부터 부모를 잃고 각자 헤어져 오빠는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고, 여동생은 고모네 집에 맡겨졌으나 갖은 학대와 구박을 받고 있다.¹⁷⁾

이들 작품은 부모의 부재, 그로 인해 고아가 되거나 경제적 궁핍을 겪으며 어렵게 살거나 신체적 결함으로 장애를 가진 소녀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위기를 겪으며 자기비하나 자기연민에 빠졌다가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가 해결되고, 권선징악의 구도에 따라 이야기는 교훈을 전달하며 끝을 맺는다. 이때 조력자의 등장과 결말에 이르는 과정은 우연성이 남발한다. 이러한 우연성, 자기연민과 비하는 ‘순정’만의 특징은 아니다. 〈지평선을 너머〉의 수철 남매와 〈엄마찾아 삼만리〉의 금준이와 같이 김종래의 만화뿐만 아니라, 역사를 소재로 한 만화 등 1950년대 만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야기 구조다.

이는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약화되기는 하지만 1950년대의 만화들이 대중성을 지탱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야기 구조이기도 했다. 연구

17) 잡지에 게재된 작품 중에 박임주의 〈짧은 창살〉은 왕이었던 아버지의 별세로 여왕이 된 공주의 이야기다. 어느 날 나타난 기사의 기지로 여왕의 나라를 구하고 기사와 여왕은 결혼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순정”이라는 표제는 붙어 있지 않은 것으로, “순정”이라는 표제가 붙은 작품과 그림이나 서사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들은 이러한 특징이 가족만화와 초창기 순정만화에서 똑같이 등장한다는 근거를 들어 가족만화에서 순정만화가 파생되었다고 단정한다. 가족만화의 대부분의 주인공이 소년이고, 소년의 대쌍으로 등장한 소녀를 위한 읽을거리로 순정만화가 파생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파생과정에서 어떻게 순정만화라는 명칭과 장르적 관습이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없다. 또한 순정만화가 소녀가 독자로 호명되면서 등장하긴 했으나 가족만화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왔다는 근거는 희박해 보인다.¹⁸⁾

오히려 아이들 독물로서 ‘순정’의 서사적 원류는 식민지 시기의 소녀 소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한국 순정만화의 서사가 일본 쇼조망가와 다른 방향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우선 이를 위해 식민지기에 등장했던 쇼조망가에서부터 살펴보자.

일본의 쇼조망가는 1930년대 즈음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5년 〈소녀구락부〉에 게재된 크라카네 쇼스케의 〈도리짱의 만세(どりちゃん マンザイ)〉와 1938년 〈소녀의 벗(少女の友)〉에 게재된 마츠모토 카츠지의 〈빙글빙글 구루미짱〉 등 중일 전쟁 이전에 소녀 잡지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실었던 만화가 “쇼조망가(少女漫畫)”라는 하나의 장르로 형성되었다. 여기에 1953년 긴 장편의 스토리를 입힌 것이 테즈카 오사무(手塚 治虫)의 〈리본의 기사(『リボンの騎士)〉다.

한국에서도 1920년대에 이미 소녀가 등장한 만화가 게재된 바 있다. 1929년 9월 13일부터 『동아일보』에 연재한 〈말괄량이 박람회구경〉이 그것이다. 이 만화는 기쿠자와 라쿠텐이 1928년 11월 4일부터 『시사만화』에 연재한 〈엉뚱한 하네코양(とんだはね子嬢)〉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18) 1950년대가 워낙 장르적 개념이 모호하고 혼종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만화라는 장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또한 시기적으로 가족비극 서사는 당시 대중 매체의 흔한 이야기 소재였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

인다. 〈영똥한 하네코양〉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소녀가 만화에 등장한 것으로, 1년 후 식민지 조선에서도 서구의 말괄량이 여성의 이미지들이 유입되면서 일본의 하네코양과 같은 말괄량의 캐릭터가 재현되었다.

1920년대 신문은 신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성인용 코믹스를 게재하면서 자유연애와 서구식 가정생활을 강조하는 신여성의 모습이 주된 소재였다. 다소 거친 듯한 신여성의 모습은 가부장적인 전통사회에서 서구식 근대적 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신여성들은 우스꽝스럽게 풍자하고 희화화할 대상에 불과했다. 결국 이들 만화는 가부장적 질서를 내면화한 남성들의 시선에 의해 그려진 것일 뿐이었다. 〈말괄량이 박람회구경〉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신여성에서 소녀로 바뀌, 서구에서 들여온 여성의 이미지인 “말괄량이”를 재현했을 뿐이다. 이 만화의 주체 또한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



㉔ 〈영똥한 하네코양(とんだはね子嬢)〉



㉕ 〈말괄량이 박람회구경〉(『동아일보』, 1929년)

일본의 〈영풍한 하네코양〉이 소녀 잡지 창간과 더불어 “쇼조망가”로 장르화 되고 있을 때, 〈말괄량이 박람회구경〉은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다. 1930년대 들어 신문, 잡지에는 아동만화가 연재되었지만, 이 “아동” 안에 소년과 소녀는 특별히 구분되지 않았다. 주인공들은 주로 소년들이었고 모험과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소녀는 소년의 주도 하에 그의 뒤를 쫓는 부차적 인물에 불과했다. 따라서 〈말괄량이 박람회구경〉에서 소녀의 재현은 뜻밖의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 시기의 다른 매체에서도 소녀의 재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 조선에 등장한 소녀소설은 소녀를 대상독자로 하며, 주요 잡지에 게재되면서 소녀담론을 형성했다. 주로 『어린이』지나 『반도소년』, 『신소년』, 『동아일보』, 『소년』 등에 “소녀소설”이라는 명칭으로 게재되었는데,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장르다. 그러나 일본의 소녀소설은 부르주아 가정의 소녀 독자를 대상으로 창작되어 그들의 서구 취향 및 자유주의적 욕망을 반영하는 데 반해, 식민지 조선의 소녀소설은 가난한 소녀의 수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¹⁹⁾ 이 시기의 소녀소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소녀는 가련한 신분에 연약한 존재다. 가족과 물질이 결핍된 소녀의 슬픔과 서러움을 그린다. 둘째, 소녀는 순응적이고 감상적이며 의존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때로는 이러한 순응성이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한다. 셋째,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소녀의 성격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머물러 있게 한다.²⁰⁾

1929년의 〈말괄량이 박람회구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만화의 소녀는 상당히 밝고 활달한 말괄량의 표상이다. 시골에서 서울 구경

19) 최배은, 『한국 근대 ‘소녀소설’의 ‘소녀’연구』, 『아시아여성 연구』 제53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14, 119~120쪽.

20) 최배은, 『한국 근대 ‘소녀소설’의 ‘소녀’연구』, 『아시아여성 연구』 제53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14, 121~130쪽.

온 부녀가 근대화된 문물을 처음 보면서 겪는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시골촌부지만 말괄량이 소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부딪히는 자유로운 캐릭터이며, 천방지축이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소녀소설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의 아동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생경한 소녀임에 틀림없다. 결국 〈말괄량이 박람회구경〉의 소녀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미지로, 일회적으로 소비되고 사라졌다.

이와 같이 식민지 조선의 소녀소설은 일본의 소녀소설의 장르적 개념과는 다른 형태로 유통, 소비되었다. 게다가 조선의 소녀소설의 특징이 소녀소설에만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1930년대 신문의 어린이 지면에 게재된 동화에서도 흔히 등장하는 이야기 구조이기도 하다. 즉 소녀소설만의 장르성을 획득하지도 못했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소녀”와 “소녀소설”은 조선에서는 그 대상을 찾지 못하고 표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지녔기 때문이다. 결국 소녀가 주인공이지만 소녀를 위한 읽을거리가 아니었던 만화 〈말괄량이 박람회구경〉처럼, 식민지 조선의 소녀소설 역시 소녀를 대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년과 소녀 모두가 읽는 독물이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식민지기의 소녀소설의 특징은 1950년대 가족만화에서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초창기 순정만화에서 상당부분 일치한다. 게다가 1950년대 대중매체에서 “순정”이라는 표제를 단 서사물이 이미 소비되고 있었다. 물론 이 “순정”의 서사물은 성인잡지에서 유통된 사랑이야기였으나 어린이 잡지에 유입될 때는 순정의 의미망에서 사랑이 탈각된 상태로 사용되었고, 서사는 식민지기의 소녀소설 류의 어린이 독물에서 가져왔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말하는 가족만화에서 순정만화가 파생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순정만화와 가족만화가 유사한 서사적 관습을 형성하며 착종되어 있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정파, 순정그림소설 <환구를 가는 곳 (6화)> 『만화세계』, 1957.5)

순정그림소설이라는 표제를 단 정파의 <환구를 가는 곳>에서 선회를 구하려는 고아들의 마음은 ‘순정’으로 표현된다.²¹⁾ 주로 친구들과의 우정,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도와야하는 마음,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정의로움, 협동심과 같은 주제로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 순정그림소설, 순정소녀그림이야기, 순정사진소설 등의 표제를 달고 게재되었다. 이것은 식민지 시기의 어린이 독물(讀物)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이야기 구조다. “순정”의 표제를 단 작품의 이야기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남매는 살아있다>와 같은 순정서부소설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녀가 주인공이다. 둘째, 소녀는 결핍을 지니며 그것을 채워줄 가족에 대한 열망이나 유사가족을 만들게 된다. 여기에는 주로 신체적 장애와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파괴가 수반된다. 신체장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서술은 없지만 전쟁 이후 소설들에서 흔히 나타났던 장애 모티프가 어린

21) 정파, <환구를 가는 곳>, 『만화세계』, 1957. 5월호, 245쪽.

이 독물에서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부모 역할을 했던 언니나 오빠의 부재는 그리움을 낳게 된다. 부모 모두 부재한 경우에는 입양아가 느끼는 서러움이 작품 전반부에 채워진다. 이들은 가출로 이어져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이내 이들을 환대해줄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다. 혹은 고아원에서 협동심을 발휘해 서로 위로하며 가족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유사가족이 형성된다. ‘순정’의 서사에서 엿보이는 가족복원의 욕망은 이전의 어린이 독물(讀物)들에 비해 훨씬 강력한 서사를 형성한다.

셋째, 이러한 서사를 지탱하고 있는 감성이 바로 신파성이다. 주로 자기연민과 자기 비하의 신파적 감성이 이들 서사의 저변에 깔려 있다. 정파의 〈흰구름 가는 곳〉의 선희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게 느낀다. 가출 후 들어간 고아원에서도 갖은 고초를 겪던 선희는 자신을 구출하러 온 경찰을 보고 가출아동을 잡으러 온 것으로 착각해 도망 다닌다. 통행금지 시간에 광화문 네거리를 방황하는 선희는 어느 집을 바라보며 “이 집 사람들은 따뜻한 잠자리에서 포근히 잠들고 있겠지? …선희는 이런 생각이 들며 울컥 울음이 복받쳐왔습니다. 가련한 제 신세가 새삼스럽게 불쌍해졌습니다. 왜 나는 남들이 잠자는 밤에 홀로 이런 곳에서 떨고 있어야 하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결국 선희는 죽고 싶다는 생각에 이른다. 선희의 자살결심은 세 페이지에 걸쳐 서술되는데, “죽자”는 결심 이후의 자기 연민과 서러움이 주된 내용이다. “죽자”는 결심에서 급기야 한강철교에서 처량하게 우는 모습은 자기 처지에 대한 비하와 연민이 절정으로 치달아 독자의 감성이 폭발하도록 유도되어 있다.

이러한 감성이 순정 장르에는 끊임없이 서사화된다. 1963년 엄희자가 일본 쇼조망가 풍의 조형미를 앞세운 순정만화를 출간했지만, 서사는

여전히 초창기의 순정만화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감성은 1960년대 들어 만화검열이 강화되면서 “순정만화의 없애야할 폐단”이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순정만화를 떠받치고 있던 주요한 감성구조임엔 틀림없다. 이처럼 1950년대에 등장한 순정만화라는 장르 역시 일본의 소녀소설이나 쇼조망가에서 재현한 소녀의 이미지와는 다르다. 이는 ‘순정’이라는 서사가 한국적 정서에 기반하여 먼저 성립되어 있었고, 이것이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 소비되다가 일본의 쇼조망가와 접목하면서 오늘날의 순정만화의 개념으로 바뀐 것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 엄희자의 등장과 남은 문제들

흔히들 순정만화는 일본의 쇼조망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마치 이것이 명문화되어 순정만화가 온전히 쇼조망가로부터 탄생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그 영향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순정만화라는 큰 스펙트럼을 지나치게 압축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즉 순정만화가 일본 쇼조망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봄으로써 원류에서부터 무조건적인 영향관계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순정’이라는 한국적 장르의 성립, 혹은 순정의 서사적 관습의 형성을 먼저 고려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순정만화라는 표제에서부터 논의를 출발했다. 영향을 받았다고 전제한다면, 왜 ‘소녀만화’가 아닌 ‘순정만화’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순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추출해 보았으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순정만화로 전유되었는지를 고찰했다. ‘순정’이라는 단어가 감상적이고 감정을 드러내는 어휘로 사용되고, 이후에 감

상/감정이 여성의 전유물로 구분되면서 여성성을 함의하게 된다. 이는 순정만화가 유독 여성들이 읽는 전유물로 굳어지는 계기를 설명해준다.

만화사에서 소녀를 독자로 대상화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다른 매체에 비해 늦은 출발이었지만 소녀 독자를 위한 읽을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매체는 기민하게 대처했다. 그동안 특별히 소녀를 위한 만화가 없었던 바탕에서 소녀의 취향을 재현해야 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작업이었다. 이에 따라 매체는 크게 두 가지의 전략을 내세웠다. 잡지사들은 소녀가 이상화(理想化)할 만한 아름답고 우아한 공주풍의 그림을 보여주며 새로운 조형적 미의 세계를 추구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져온 소녀소설의 서사관습과 인물의 성격을 “순정”이라는 표제 아래 읽을거리로 제시한 것이다. 사실 소녀소설의 서사관습은 당시 김종래와 같은 작가의 작품군 속에서도 구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정”이라는 표제를 달며 굳이 김종래의 작품군과 구별짓기를 시도한 것은 소녀 독자를 상상했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렇기에 소녀의 취향이 드러나는 장르적 개념으로 ‘순정’이 만화와 교착되어 순정만화로 표지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화 연구사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순정만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은 한성학의 〈영원한 중〉으로 추정하고 있다.²²⁾ 이 작품을 시작으로 권영섭의 〈오손이 도손이〉(1960.1), 〈울 밑에 선 봉선이〉(1960.7) 등의 단행본이 제작되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순정만화가 1차 변곡점을 맞이한 시기를 엄희자의 등장 전후로 나누고 있다. 1960년대 엄희자의 등장으로 오늘날 순정만화에서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징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22) 손상익은 한성학의 〈영원한 중〉의 앞뒤 표지가 뜯겨나가 정확한 출판연도는 알 수 없지만, 목차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1957년 4월 20일 完”이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1957년 발표된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하』, 살림, 2000, 40쪽.

엄희자 이전의 순정만화는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동그란 얼굴과 3~4등신의 귀여운 캐릭터는 다른 장르의 만화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엄희자 이후 순정만화의 주인공들은 별이 반짝거리는 커다란 눈동자에 8등신의 인형 같은 캐릭터로 변화했다.²³⁾ 엄희자 이후의 순정만화는 조형적 특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성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서사적 관습과 인물의 성격이 바로 그것이다. 1960년대 순정만화의 서사와 인물은 정파의 순정소설류와 다를 바 없다. ‘순정’은 이미 한국 내에서 어떤 기류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 큰 흐름 속에서 일본 쇼조망가의 조형성이 접목되었다. 남은 문제는 엄희자 이후에 등장한, 소위 〈아홉번째 신화〉를 중심으로 한 여성작가들의 순정만화다. 이들의 작품은 앞서 말한 ‘순정’의 기류를 따르는 것 같지만, 그들만의 새로운 문법으로 순정만화를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동 만화잡지에 게재된 만화에는 독자들이 보내온 문구가 게재되어 있다. 일종의 독자후기로 보아도 무방한데, 작품에 대한 감상과 바람이 소속과 학생의 이름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²⁴⁾ 순정그림소설인 〈흰구름 가는 곳〉에 게재된 문구들을 살펴보면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다.²⁵⁾ 이는 “순정”의 표지를 달았지만 남녀 학생

23) 김소원, 「작가론」, 『한국만화 걸작선 ⑨ 엄희자컬렉션』, 부천만화정보센터, 2008, 8쪽.

24)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백골가면의 활약을 빨리 보고 싶어요”(대전 신흥국민학교 5학년 서주훈) (『만화세계』, 1957.1)

“김종래 선생님 승철이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서울 사범 국민학교 3학년 정창섭) (『만화세계』, 1957.5)

25)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선회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 음악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서울 덕수 국민학교 4학년 조정무)

“정파 선생님 불쌍한 선회를 저의 집으로 보내주세요”(서울 덕수 국민학교 5학년 윤정일)

모두가 읽었을 것으로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즉 만화계 전체 독자로 남학생 독자가 여전히 우월한 가운데 순정만화는 가족(의 비극)서사에 익숙한 독자들까지 포섭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순정’의 서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것이 온전히 소녀독자를 위한 읽을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러나 순정만화가 여성만화의 표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독자의 등장만큼이나 여성 작가가 만화계 주류로 편입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든 것이 순정만화였다는 점에서 순정만화를 둘러싼 만화계 내외부의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후속연구로 남겨둔다.

“선화가 떠나는 길엔 장해물이 없기를 빕니다”(강원도 묵호읍 윤상일)

“정파선생님 선화를 무사히 도망하도록 부탁드립니다”(진주 사범 부속 초등학교 3학년 백성관)

“정파 선생님 선화를 더 괴롭히지 마세요”(서울 성북구 돈암동 박순자)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만화세계』, 『만화학원』, 『만화학생』

2. 논문과 단행본

김소원, 「작가론」, 『한국만화 걸작선 ⑨ 엄희자컬렉션』, 부천만화정보센터, 2008.

박숙자,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어문학』 제97집, 한국어문학회, 2007, 267~290쪽.

박인하, 『누가 캔디를 모함했나』, 살림, 2000.

백정숙, 「소녀세계의 창을 연 엄희자」, 박재동·김이랑, 『한국 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1995.

서은영, 「한국 근대만화의 전개와 문화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8.

_____, 「역사만화의 형성과정과 양상」, 경남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학술대회 발표문, 2015.9.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하』, 살림, 2000.

이선미, 「명랑소설의 장르인식, ‘오락’과 ‘(미국)문명’의 접점」, 『한국어문학연구』 제5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 55~93쪽.

최배은, 「한국 근대 ‘소녀소설’의 ‘소녀’연구」, 『아시아여성 연구』 제53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14, 111~138쪽.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Sunjung’ and “Sunjung Manhwa”

Seo, Eun-Young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formation of ‘Sunjung’ and “Sunjung Manhwa”. As is commonly said, Sunjung Manhwa is affected Shoyo manga of Japan. It might not be totally ungrounded, but it established fact what was an overly schematized. It caused which did not understand about Sunjung and Sunjung Manhwa. Therefore this study purposed to consider from complex birth of the genre what “Sunjung Manhwa”. In the first, this study searched look up the usage of the word on ‘Sunjung’. ‘Sunjung’ also used word which innocence is emphasized in the colonial period. Emotion word on ‘Sunjung’ is authorized to femininity for gender as girl was discovered. Manhwa magazine’s publisher think the girl as reader is expected. They bring over Sunjung as media-strategy. Sunjung and Manhwa get complicated as one genre. At this time, it get rid of love in narration of Sunjung, remain only ‘purity’ and ‘sensibility’. ‘Sensibility’ is Shin-pa in popular arts in the 1950s and girl as heroine is immanent passive femininity in gender. This is can discovered the originate in girl novels in colonial korea in 1920-30’s. These girl who appeared in girl novels were character which a poor condition, a disciplined, a dependent. This is keep a while since Um Hee-ja’s appearance in 1960’s. Therefore we have to know that layered in the course are formed to simply can’t compare as shoyo manga in japan.

(Key Words: Sunjung, Sunjung Manhwa, Shoyo manga, Girl, Girl Novels, 1950’s, Um Hee-Ja, Manhwa, Manhwa Megazin)

논문투고일 : 2015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1일

수정완료일 : 2015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15일